

가정과 시대를 살리는 현숙한 여인

잠언31:30-31, 로마서16:1-16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진실로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한다. 그동안 잠언서를 묵상해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네비비이전의 안내를 잘 받으라고 한다(웃음). 운동하러 갔더니 캐디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여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대마다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인이다. 물리학과 화학상을 받았다. 한 시대에 최고로 쓰임 받은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는 8천여 개의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은혜 되는 찬송이 많다. 수많은 여성 위인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별히 위대한 인물의 배경에는 대부분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교로 전통을 따지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일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후대와 사회 여성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정을 주도하지 않거나, 또 자녀 교육을 여성들이 도맡아 한다. 어머니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현숙하게 되면 진짜 가문, 가정의 제대로 서고 후대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나는 세계에 여자대학이 따로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여자대학이 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민족이 살리려면, 이 민족을 발전시키려면 여성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그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다. 특히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성들이 역사상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을 가지고 모든 남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혐오를 해서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자주 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치우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맞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에 지으셨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격하는 사상이 대학과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신학까지 침투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남자 분들도 이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모두가 현숙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한다.

1. 첫 번째로 볼 것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1)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에게 훈계하는 잠언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 르무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왕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솔로몬 왕의 별명이 르무엘 왕이었다고 보고 있다.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라는 것이다. 밧세바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통쾌하고 자복한 여자이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 밧세바라는 인물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쓰신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쓰신다.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롬3:10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22:1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한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과 경건으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를 부활시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지옥배경과, 죄의 배경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 체험을 가진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말인 것이다. 언약을 전달해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준 어머니가 있었다. 복음을 체험한 우리 참사랑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이 늘 신앙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날마다 순간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다시 여러분이 혼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이 험난한 생을 살았는데 노조위원장장을 지냈다고 한다. 이 분이 기본 협숙을 10번 이상 받았다. 계속 협숙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안다는 말의 '이다'나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다. '지(智)'와 '덕(德)'이 합쳐진 것을 말한다. 행동으로, 삶으로 체험한 앎을 가리켜서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안다고 할 때, '이다'라는 말을 쓴다. '기노스코'도 신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복음을 정말로 체험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복한다.

(2)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전달한 언약의 내용이 도대

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3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쪽 나온다. 9절까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엄마에게 배우는 것이다. 엄마의 잔소리가 최고의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정말 네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현숙한 여자를 만나서 네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모든 램프들이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한다.

(3)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현숙한 여인 때문에 가정의 산업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산업이 번창한다는 말이다. 산업이 잘 되고 있는 분은 아내 때문인 줄 알면 된다. 진짜로 기억하시기 바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있다. 아내가 잘 협력했던지, 기도했던지, 많이 봐 줘서 그런 줄 알면 된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현숙한 여인이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바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썼다고 본다. 엄마들은 자녀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하신다. 양식을 가져와 가족을 굶주리지 않게 한다. 가정의 경제를 경영한다고 되어있다. 조금 살만하게 되었으면 여자처럼인 줄 알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혼할 때는 재산은 반 나눠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 당신만이 돈을 번 것이 아니고 당신 아내의 협력으로 돈을 취했기 때문에 반 나누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다 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낮에는 농장을 경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신 부모님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밤에도 일을 하며 무엇을 꿰고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20절에, 그러면서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였다.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번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 것이다. 21절에는 온 집안 사람들을 제대로 입한다고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삶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잘 보여줬다는 것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램프들에게 이런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저 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회개하며 봉사하며 살겠다.' 라는 모델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23절의 말씀이다. '그의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한다.' 아내를 잘 두면 남편이 인정받는다. 어떤 친구는 자기 남편이 학위를 안 받으니까 자신도 절대 학위를 받지 않더라. 내가 한 때 새마을 운동 지도자 교육을 갔다. 홍영래는 여자 분이 간증을 하러 왔다. 간증에서 성공사례를 이야기한다. 이 분은 초등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부상을 받아 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잃었다. 조국을 위해서 다리를 바친 것이다. 그 남자 분에게는 아이가 5명이나 되는데 어머니도 망가 버렸다. 그 소식을 신문에서 본 이 여자가 자원해서 시골로 시집을 갔다. 가서 '내가 당신과 살겠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아이들도 다 놀란 것이다. 여자 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는 '너는 내 딸 아니다.' 하고 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집으로 시집갔다고 한다. 가서 5명의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명문대학에 갔다. 그리고 이 집의 가문이 일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엄마가 때리고 욕하고 잘못하면 '엄마 빨리 죽어. 그래야지 아무게 암마처럼 새엄마가 와서 잘해주지.'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어머니들이 그 여인 덕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웃음)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잘 도와서 가문이 산 것이다. 선생님이었으니 마을의 아이들도 모아 교육을 시키고 하니 마을이 부흥된 것이다. 새마을 운동인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 그런데 남편이 다리가 불구자인데 활동을 못하지 않거나, 이 여자 분이 자기 남편의 시숙에게 온 초대장을 가져와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오라는 초대장이 왔다고 가라고 한다.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가냐고 했지만, 자신의 남편을 월척어에 태워 당당하게 행사의 맨 앞에 서도록 만들어줬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몇 십년이 지났다. 40년도 넘는 것 같다. 그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다. '홍영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저런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살겠구나. 가정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에게 배우기를 하 나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 이 여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자였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표시가 난다. 말을 해도 구원받은 표시가 난다.

(4)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이 나온다. 밤에도 일하고 장사를 하고, 20절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온 집안 사람들을 제대로 입하고 그 남편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도록 만들고, 26절에는 입을 열면 지혜와 인애의 말을 한다고 한다.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과 인애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27절에는 집안일을 잘 보살핀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헌한 과거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한 것이다. 남편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유대사상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다 소꿉친 여인을 정직한 여인이라고, 현모양처가 아니라 경영자, 인생경영자라고 말한다.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62가지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분이였다는 것이다. 그 어머니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와 잠언21장의 내용이 그다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현숙한' 말이 히브리어로 '카일' 혹은 '하일'이라고 발음한다. 이 단어는 원래 남성에게 쓰는 용어이다.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힘이라는 뜻이고, 군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군인처럼 힘이 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말을 여성에 썼다. 호서대학에 이영진 교수 쓴 글에 보니까,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인 경우는 성경에 딱 두 번인데 그 중 하나가 잠31:10에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롬3:11에 보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뜻은 어떤 사람인가.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밤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찾아갔던 여인이다. 그래서 그 팔꿈치 밑에 가 있었다. 자신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나도 그렇게 알지만 동네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해 주고 결국에는 '너를 가까운 친척으로 너를 취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가

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 때 나를 맞아 주겠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나중에는 기업을 무를 자가 된다.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밤에 외간남자가 찾아갔는데 현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조금은 다른 말이다. '그런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아니지.' 하는 것은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런데도 현숙하다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잠31장의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군인 같은 여자라는 것이다. 아주 힘 있는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자기의 어머니는 남자처럼 열심히 살아서 자기를 길렀다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성취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용맹하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요즘 RUTIC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시는가? 전교인이 봐야 한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어머니인가? 저는 뉴스를 볼 때 눈물을 흘린다. 어떻게 저러 수 있을 까 똑같은 삶을, 경제상황, 사회상황, 국가상황, 이렇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 모든 것이 건넌은 이 사회 속에서 저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내 목장에는 왜 저런 사람이 없을까. 나는 저런 사람을 아직 못 세웠구나. 제자 한 사람을 못 세웠구나.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조금 더 잘 훈련시키고 잘 먹었더라면, 제대로 설교를 하고 목회 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긴 시간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 용맹한 군인처럼 가냘픈 여인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용맹하게 가정을 경영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세상에서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가장 지혜 있는 왕을 길러낸 사람.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다. 우리 참사랑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사람 살리기를 바란다.

2. 그렇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1) 한 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전 역사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0절과 31절에 결과가 잘 나와 있다. 30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헛된 것을 넘어서 영혼을 경외하는 참된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한다. 잠언은 처음부터 영혼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잘모 섬기는 것은 지식이 하나도 없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다. 많이 안 것이 병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앎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다. 언약의 조정은, 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31절의 말씀대로 열매있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열매인가. 100년의 응답이 열매로 아니다.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1000년의 응답의 열매도 햇개떡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다. 그 업마의 수고의 열매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이다. 천 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열매. 그러면서 31절에 성문에서 영혼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현숙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이다.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한다. 성경과 교회사에는 이런 증거가 많다. 7명의 램넛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대부분 한 시대에 쓰임 받은 현숙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 룩펠러이다. 세계 1등 부자를 39년 동안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내가 6살 때 교회에 갈 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너는 평생 목사님과 다투지 마라. 목사님을 해치지 마라.'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저 놈이 나를 해쳤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 존경심을 가질 때 그 분의 말씀을 들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엄마이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이유 달지 마라.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다 약속한 것이다. 세례 교인의 의무가 있다. '교회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세례교인이 아닌 것이다 세례교인은 교회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것이 '내가 얻은 수입의 1/10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분이 6살 때 이것을 배웠는데 98세를 살았다. 그렇다면 92년 동안 지켰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92년 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67가지 약속을 지켰다. 그 분이 없었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지 않았다고 한다. 한 시간 전에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것이다. 98세를 살면서 여러 명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다툼 적이 없다고 한다. 그분들이 하는 말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된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룩펠러는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노동조합 사람들이 있다. 석유회사를 세울 때, 미국의 모든 석유회사를 다 몰수했다. 그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이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죽을 지경에 처했다. '내가 지금 까지 모아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머니께 배운 것은 다른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개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사는 동안에 팔려준 것이다.' 청지기 사상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200만 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룩펠러자선재단에 다 팔았다. 지금도 룩펠러재단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배준 것이다. 죽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300만 불이라고 한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다 아는 것이다. 200만 불을 남겨놨는데, 주식이 오르면 팔고 해서 300만 불을 남기고 죽었다. 룩펠러는 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를 끝까지 지키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2) 언약을 붙잡은 용맹한 여인들도 있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여인들이었다. 특히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애서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언약의 비밀을 아는 리브가가 애서가 아리고 아답이라고 하면서 손을 옮겨줬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 사역이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언약전달의 사역이 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기생 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완성될 수 있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 에 드보라가 일어났고, 룯이라는 인물이 일어난 것이다. 포로시대에는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왕후가 있었다. 이 사람은 종족의 멸망의 위기를 막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복음의 흐름을 지켜낸 여인이었다. 특히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도 여자들이 대다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여인이었다. 초대교회의 요원들 중에도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들이 많이 있다. 전도제자들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80% 넘는 것 같다. 여자들이 열매를 바라다. 남자 장로님들도 힘 좀 내봐라. 지교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줬다. 김중복 장로님은 의사이신데, 우리교회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 분들과 모여서 기도해봐라.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롬16장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비뭇을 가르켜 '나의 보호자였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였다.'고 말한다. '브리스기는 나의 동역자였다.'고 이야기한다. 장로님들은 나의 동역자이다.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나의 동역자로 세운 받은 것이다. 여러분의 보호 때문에 내 생을 무탈하게 마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야 한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제자였다고 말한다. 정말로 권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 오늘 봉투를 가져왔다. 너 무 수고하셔서 사례비를 드렸는데 10원도 안 쓰고 다 모으셔서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평생을 노동해서 모은 돈을 가져와서 교회에 드렸다. 거의 1억, 2억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분의 6천만원 되는 돈은 건강한 남자들에게는 6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분들이 나보다 더 높은 상을 받으리라고 믿는다. 천국에는 더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고 아름다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많이 수고한 제자,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가 봐야 할 자리인데 사람들이 안 간다. 왜 그런가 보니까, 빨리 잘 가셨다는 표정들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아웅산에서 장차관들과 많은 대통령 참모들이 들어가셨을 때 땅을 치고 울었다. 합병준체와 이법석씨를 비롯한 정말 시대의 훌륭한 분들인데, 앞에 공원을 가보면 그 분들의 조상이 많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장신대 교수 중에 김기태 교수라고 있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분처럼 설교를 잘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못 봤다. 보통 설교를 잘 하면 가르치기를 잘 못하고, 지식이 있으면 가르치기를 잘 못 한다. 이 사람을 두 가지를 겸했다. 선후배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다가 간에 나빠져서 돌아가셨다. 나는 사실 그 분에게 기도문을 배웠고 상담을 배웠다.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며 울었다.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저런 귀한 분이 죽나.'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도 여제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곧 나의 어머니.' 라고 했다.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후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말은 바울이 자기 어머니로 여겼다는 말이 아닌가. 전도자 바울을 자식처럼 돌봤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 가문 전체가, 루포와 알렉산더가 그 아들들인데 위대한 크리스찬의 가문을 이루었다.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들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모든 자매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축복한다. 남편모두 참사랑가족들이 현장에서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한다.

결론이다. 모든 현상이 다 중요하지만, 특이 오늘 잠인 31장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현장 살리는 기도제목들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한다. 가정 살리는 치유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가장 큰 상처도 가정에서 오지만, 최고의 치유도 가정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복음 2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서밋을 세우는 역사도 가정에서 일어난다. 내가 제일 위로받고 힘이 될 때는 집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이다.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 한번도 '당신 말로 내가 힘이 난다. 고맙다.'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힘이 났다.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후대를 양육하는 지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밤새바의 가정에서 솔로몬이 났다.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서밋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서밋의 두 가지 큰 응답을 참사랑가족들이 가정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청년들을 위해서 참사랑가족들이 정말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 가정 살리는 축복을 받아야 할 최고의 시간표가 젊은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너는 나이가 찼는데 왜 결혼 안 하고 있냐. 애인은 있냐. 없냐.' 그런 말을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란다. 램넛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라. 램넛들이 명절에 집에 안 간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한다. 그냥 우리가 조용히 계속 기도해준다보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말 기도하기를 바란다. 헌 고부신씩도 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현숙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개인이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는 기도도 하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도 벌여지고 계속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냥 무너질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반드시 지켜가기를 바란다. 참사랑가족들이 가정을 위해서 롬16장의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종이 세우셔서 그동안 사역하게 하셨지만 종이 너무나 불민하고 모자라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은 것,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으면 이 지역이 변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리는 인재들이,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